



**Global AI 동향과
미래 맞춤형 AI전략**

리더메시지



김명구 파트너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모니터딜로이트

2024년 현재, 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 부터 기업의 업무까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로 우리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AI 도입 시 각 산업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인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AI 도입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AI 도입을 확대하면서, 임직원 규모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 유통,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는 AI 도입 시 인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역과 AI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AI-Fueled Workforce(산업 특화된 AI 활용 가능 인재)확보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둘째, AI기술의 도입은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도입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AI 사용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AI 주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AI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 정부의 산업별 정책을 준수하고, AI 설계 - 개발 - 배포 - 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Trustworthy AI Framework(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과 공동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AI 혁신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과 제약사항이 반영된 AI 도입을 통해 사용자들의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개인/산업 맞춤형 AI모델 (Tailoring AI)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에서 미래 AI혁신으로 향하는 과도기이며, "Tailoring AI(개인/산업 맞춤형 AI모델)는 비용절감, 지연시간 최소화, 복잡성 완화 등 산업별 우선 가치와 각 산업 맞춤형 혁신을 실현하는 잠재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전략은 각 산업과 개인이 AI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AI 도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AI 글로벌 경쟁력 (1/2)

현재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AI지수 종합점수에서 6위를 차지하며,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중

글로벌 AI 지수 상위 7개 국가 비교¹⁾

강 한국 강세 약 한국 약세

종합 점수	국가	Implementation			Innovation		Investment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개발(특허)	정부 전략	민간투자
100	미국	100.0	100.0	82.8	100.0	100.0	90.3	100.0
61.5	중국	30.0	92.1	99.7	54.7	80.6	93.5	43.1
49.7	싱가포르	56.9	82.8	85.7	48.8	24.4	81.8	26.2
41.8	영국	53.8	61.8	79.5	38.1	19.8	89.2	20.0
40.3	캐나다	46.0	62.1	93.1	34.0	18.9	93.4	18.9
40.3	한국	약 35.1	74.4	강 91.4	약 24.3	강 60.9	강 91.9	약 8.3
40.0	이스라엘	45.5	60.5	85.1	24.8	22.2	31.8	40.5

Key Findings

미국 AI지수 독보적, 국가간 차이 대

- 미국은 총 7개 중 5개 부문 1위
- 1, 2위간 종합점수 차이 매우 큼
- 외국가는 미국 대비 절반 이하 수준

한국 특허, 정부 전략 수준 우수

- AI관련 특허 미국>중국>한국 순
- 국가 AI 정책/전략 지속적 발표
- GDP 대비 AI공공투자 규모 (2위)

인재확보, R&D, 민간투자의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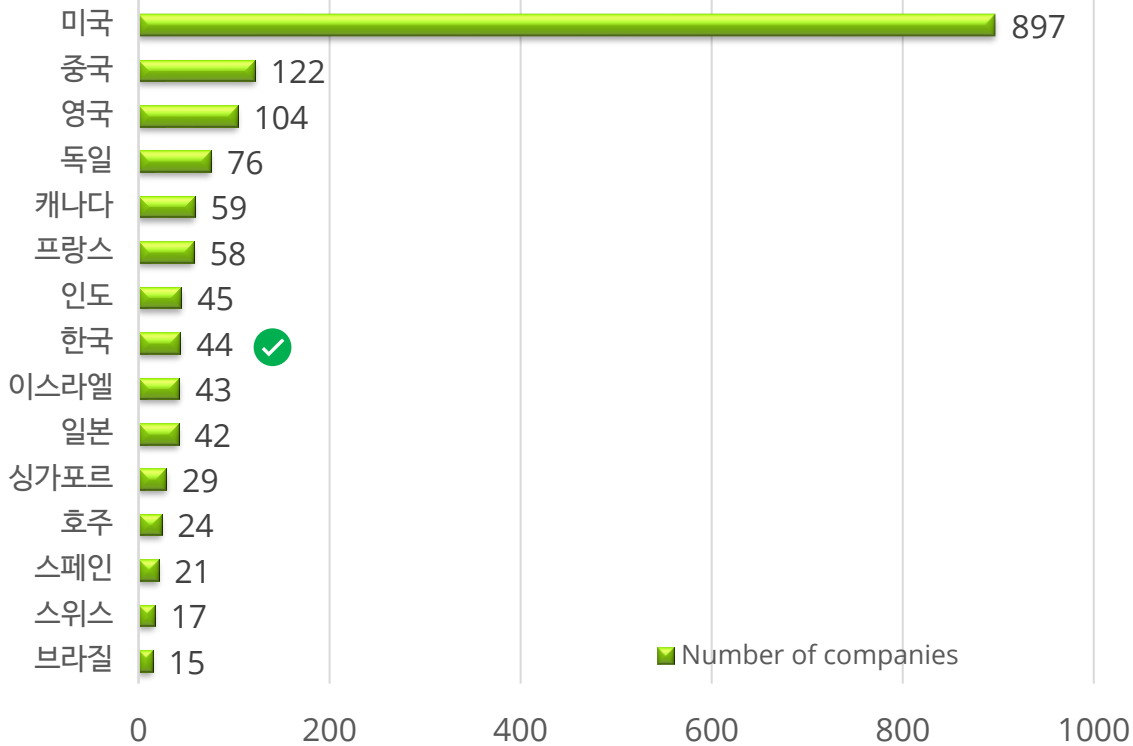
- 한국 100점 만점 8.3점 (18위)
- 미·중 중심 AI 민간투자 활성화
- 이스라엘 우수 창업생태계 보유

1) 자료 : '23.06 Tortoise Intelligence 'The Global AI Index', 62개 국가 대상 부문별 점수는 0-100점으로 1위 국가(100점) 기준 상대 점수

한국의 AI 글로벌 경쟁력 (2/2)

한국은 신규 투자를 유치한 AI 기업 수에서는 8위로 미국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나, AI 관련 특허 부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높은 순위를 기록

신규 투자 AI 기업 수 ('23)



“미국이 독보적으로 앞서 있으며, 한국은 8위 수준에 있음”

1) Quid, 2023
2) Tortoise Intelligence
3) 특허청 보도자료(23.2)

AI 관련 특허 지수 및 초거대 AI 특허 출원 수

<혁신 부문 항목별 상위 10개 국가 및 세부 점수>²⁾

순위	연구수준		특허(개발)	
	국가	점수	국가	점수
1	미국	100.0	미국	100.0
2	중국	54.7	중국	80.6
3	싱가포르	48.8	한국	60.9
4	스위스	41.3	스위스	24.9
...				
12	한국	24.3

<초거대 AI 관련 누적 특허출원 수 순위>³⁾

순위	국적별		기관별	
	국가	출원 수	국가	출원 수
1	미국	15,035	삼성	1,213
2	중국	13,103	IBM	928
3	일본	4,906	구글	824
4	한국	4,785	MS	731
5	독일	1,138	바이두	572

“한국의 연구수준은 비교적 미흡하나, AI 관련 특허 지수와 초거대 AI 특허 출원 수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

글로벌 주요 AI Trends

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 부터 기업의 업무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24년 현재 안정적인 AI 도입을 위해 노동 패러다임, AI 주권 강화, 개인/산업 특화 면에서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Key Words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디지털 기술과 AI 도구의 적극적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직업/직무의 변화



AI 주권 강화

지역 및 국가별로 AI 규제가 강화되어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관리를 강조



개인/산업 특화 AI 모델

범용 AI 모델에서 개인화 되고 도메인 특화 모델로 전환되어 더 효과적인 AI 개발 촉진

2026 ~2030 트렌드



제품 개발, 마케팅, 재무 등 기업 기능(function)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 확장



대부분 산업에서 LLM 구현을 통해 반복 작업 최소화 및 자동화 적용



고객상호작용의 33%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기능이 작업을 수행



범국가적인 AI 규제 및 법률 도입 및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AI 일상화가 이뤄질 것



산업화된 국가의 모든 사람이 AI와 상호작용을 경험할 것(AI 서비스 활용)



AI 기술 및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AI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가 강조 될 것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되는 AI는 기능 단위로 구분되어 특정 영역에서 활용될 것



AI 결과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 기능 특화 AI가 등장하게 될 것



금융, 국방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Private 형태로 AI를 구현할 것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19%의 노동자가 최소 50% 수준의 영향을 받음

300M 개의 전 세계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BY 2025

모든 데이터의

10% 는 오늘날 1%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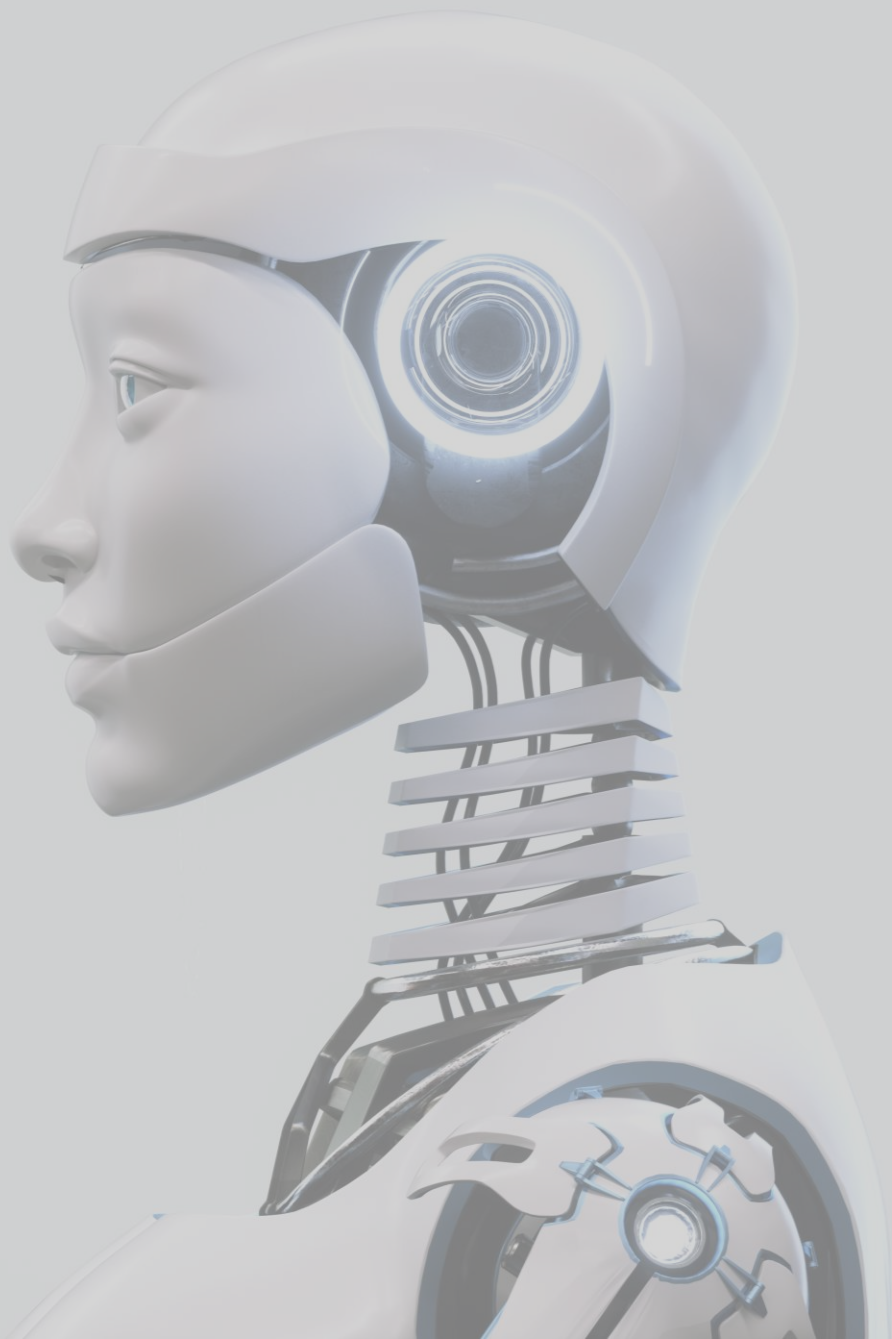
생성형 AI로부터 생산되어질 것

개발자들의

66% 는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

시니어 IT 리더들의

67% 는 향후 18개월 이내에 비즈니스를 위한
우선 순위로 생성형 AI를 생각하고 있으며,
33%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새로운 Workforce

전 산업에 걸쳐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간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AI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인간의 역할과 AI와의 영역 배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

AI와 Human의 새로운 일하는 형태

	AI/기계 중심 영역 완전 자동화 가능 작업 (AI/기계 최적)	중심 영역 AI 도움을 통한 업무 혁신 영역 (AI/기계 Support)	인간 역량 중심 영역 AI 운영을 위한 신규 업무 (인간 중심적 관리 기술 필요)	중심 영역 전통적 방식 & 인간 전문 영역 (인간 고유 판단 필요)
정의	핵심 기능 및 프로세스가 전적으로 생성형 AI에 의해 관리되고, 인간의 개입이 최소 혹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한 수작업을 요하나,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경우 효율성, 범위 및 전문성이 개선됨	생성형 AI의 도입이 다방면에서 이뤄짐에 따라 역량 및 효율성 유지를 위해 신규로 습득해야 하는 기술	생성형 AI가 거의 혹은 전혀 필요 없는, 수작업 적합한 업무로, 인간 고유 특성을 요하거나 AI 수행 불가한 복잡한 판단 필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표준화된 답변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AI 인간의 개입 없이 데이터 자동 분석을 통한 개인화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어 창의적 결과물 창출 AI 활용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도출한 인사이트로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대 하에서의 역량 심화 및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AI 도구들의 효과적 운영과 감독을 위해 다양한 직종에서 필수적인 AI 도구 관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성형 AI에는 부재한, 인간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감정 지능 복잡미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요하는 중대한 의사 결정
해당 기술 예시	기계 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지, 텍스트 생성 데이터 정렬, 분류 및 정형화된 예측 	기계 및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인간 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윤리 및 규제 생성형 AI 결과물 수정 	인간 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득 및 협상 리더십 발휘 및 윤리적 판단, 신의성실성

Work with AI - 산업 전반 인간 역할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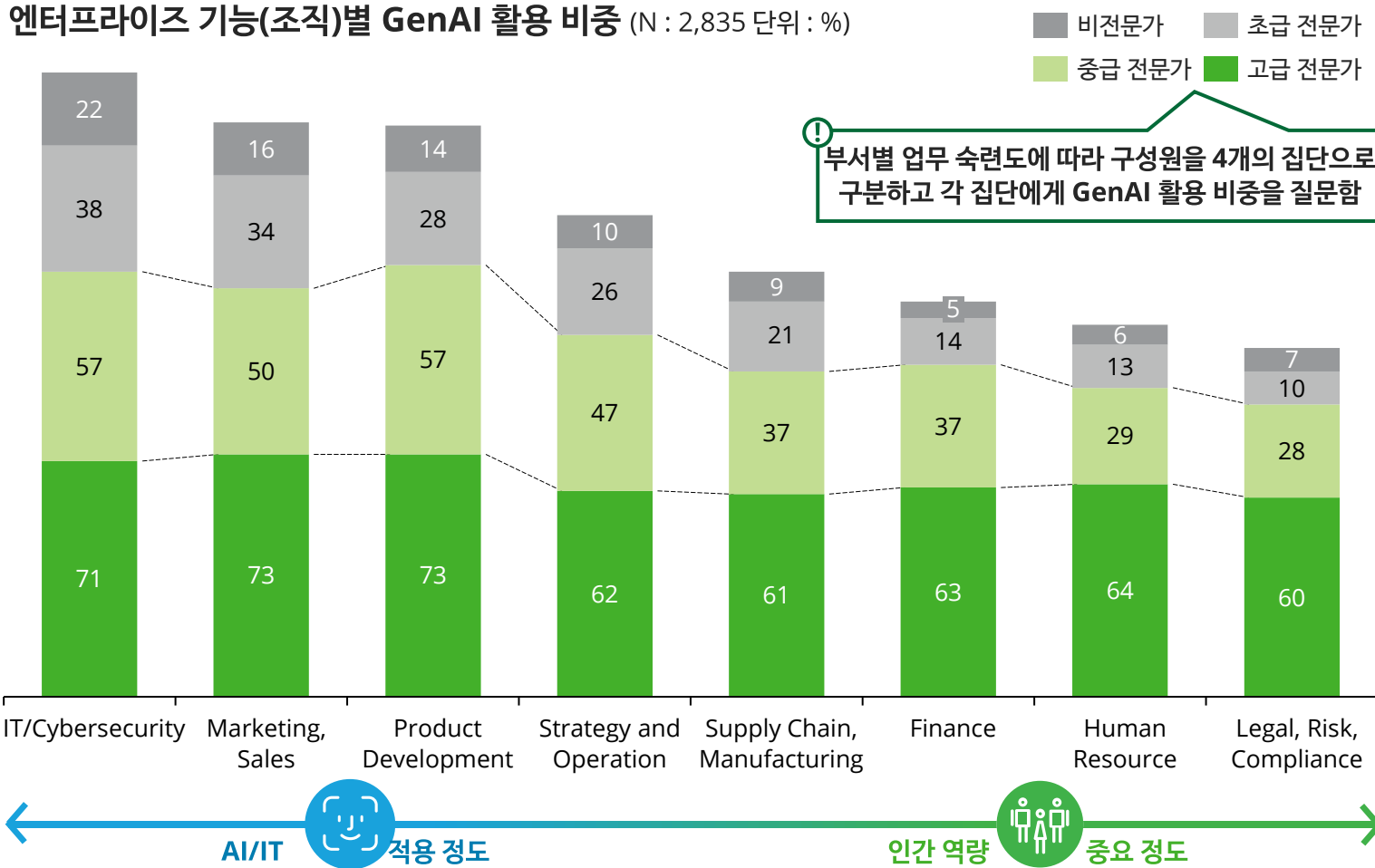
AI Operation & Human Lead - 인간 중심의 AI 시대 설계

AI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 전사적 AI 도입 확산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AI 주권 강화 개인/산업 특화 모델 전환

24년 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생성형 AI 도입 또는 도입 검토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며, AI/IT등의 인프라에 의존한 업무 비중이 높은 조직 일수록, 생성형 AI 도입이 더욱 확대 중

엔터프라이즈 기능(조직)별 GenAI 활용 비중 (N : 2,835 단위 : %)



Key Findings

전·후방 가치사슬 전체 GenAI 활용 비중 증가

- 반복 수작업, 대용량 연산 처리, 단순 의사결정 중심의 업무가 많은 조직을 중심으로 AI 기술 성공적 도입 중
- 제품 개발 및 R&D 부터 마케팅, 세일즈 등 엔터프라이즈 전 기능에서 생성형 AI 활용 비중 증가

업무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활발하게 적용

- 각 기능/조직별 전문적인 업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GenAI를 활용하는 사례 증가
- GenAI가 업무 Assistant로서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전문 영역 및 지원 업무 대상에 GenAI 확대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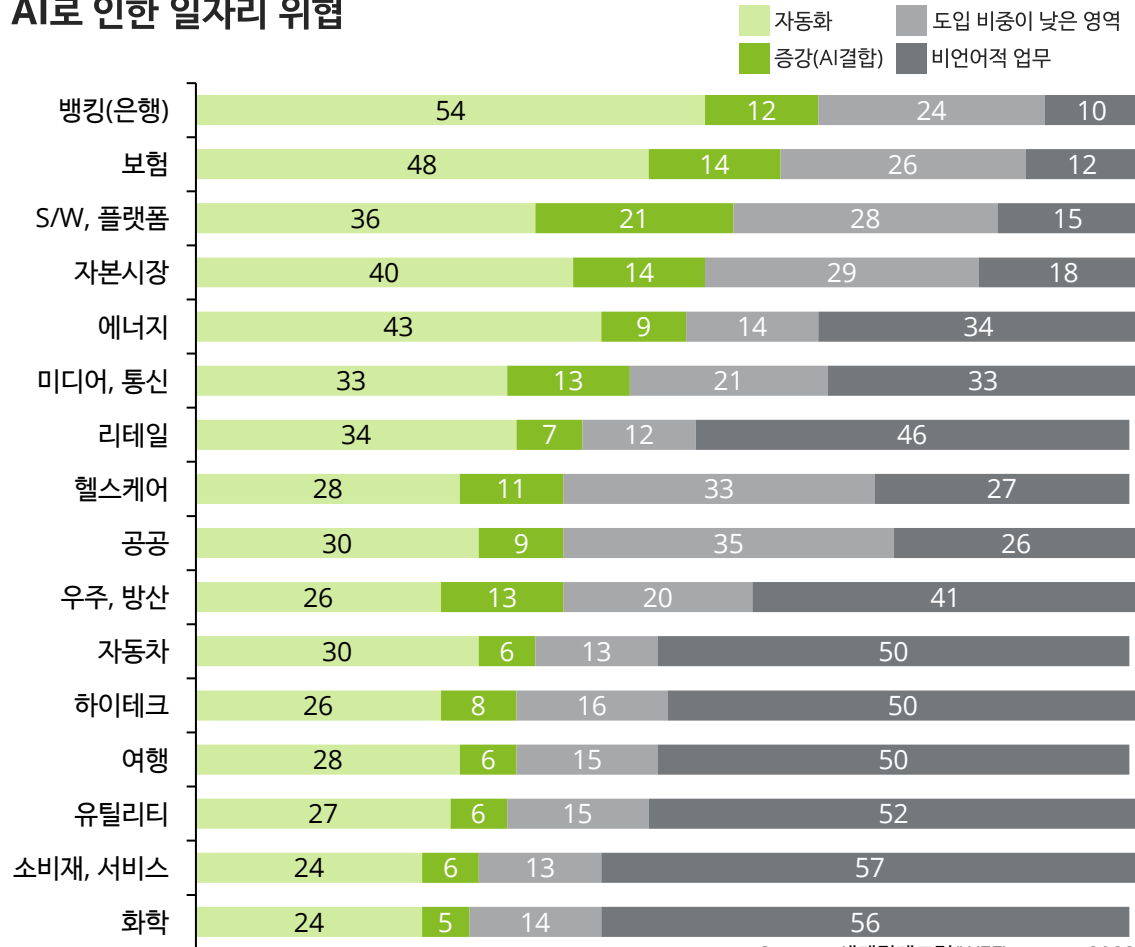
- HR, Finance, Legal 등 업무 지원 조직의 경우 GenAI 활용 비중이 타 조직 대비 낮음
-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입 방안 수립 필요

Source: Deloitte's State of Generative AI in the Enterprise Quarter one report, 2024

AI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 일자리 위협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노동 시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금융, 유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는 업종 특수성과 요구 인력 규모에 따라 인력 대체 및 역할 재정의가 예상되므로, 각 산업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



Source: 세계경제포럼(WEF) report, 2023

Note: 1)문화일보, 산업연구원 보고자료,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등에서 발췌

전문가 의견¹⁾

☹️ 부정적 의견

국내 AI 대체 가능 일자리 327만개...
이중 60%는 전문직

AI는 2년 내 세계 일자리 약 4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AI로 대체될 일자리 341만개...
사회적 기술이 중요

😊 긍정적 의견

AI가 일자리 없앤다고?
오히려 새 직업 만들 것

향후 5년 동안 대부분의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순 긍정적(Net
Positive)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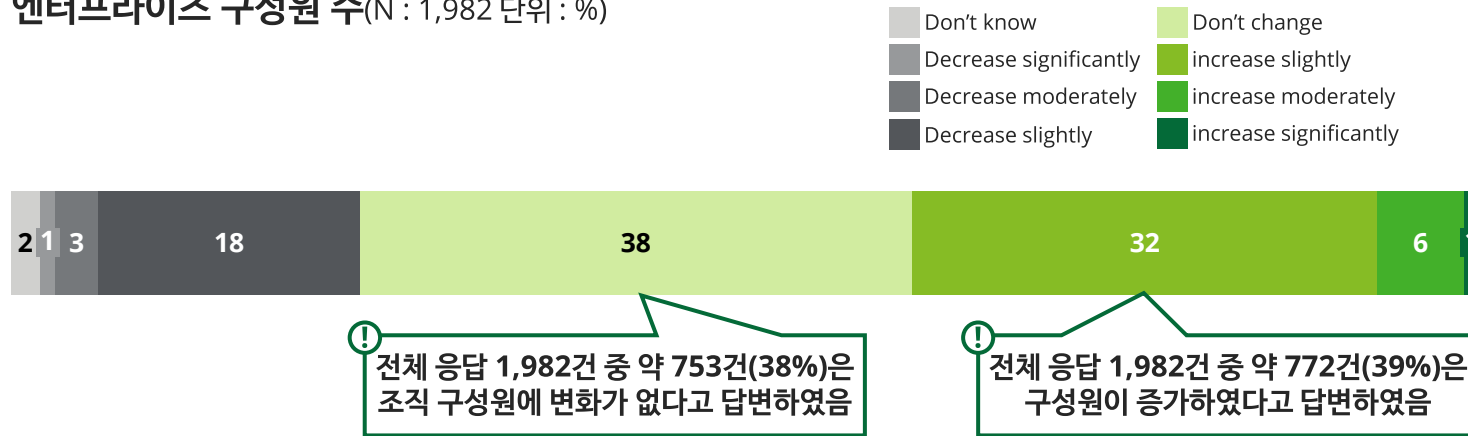
AI 관련 일자리 2년간 60% 급증

AI 기술 발전 및 기존 직무 대체 가능성에 따른
산업별 차별화된 일자리 대응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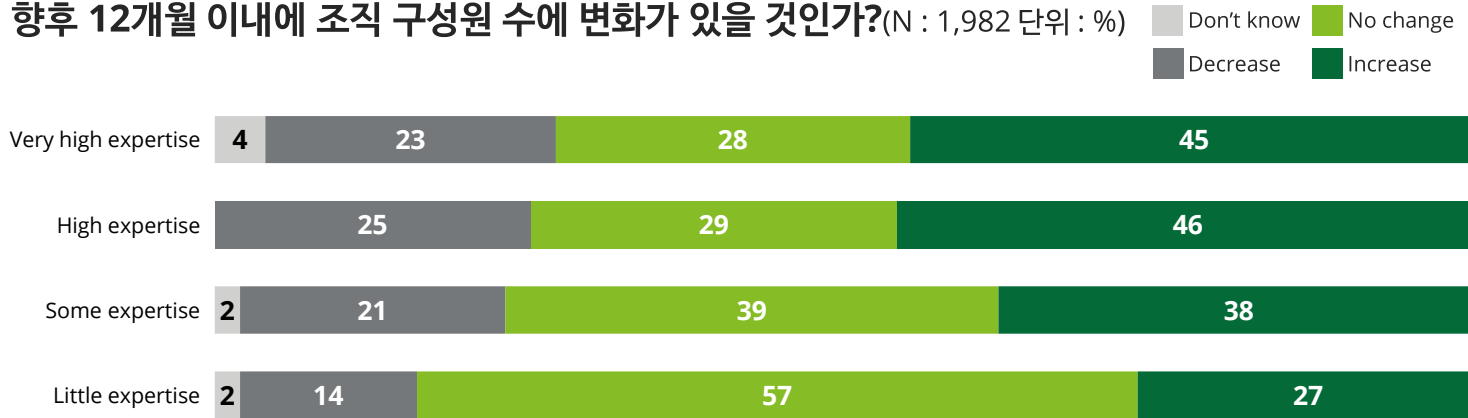
AI-Fueled 인력 확보의 시대

현재 AI 기술이 모든 산업에 확대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인력 규모는 현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AI-Fueled Workforce (산업 특화된 AI 활용 가능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엔터프라이즈 구성원 수(N : 1,982 단위 : %)



향후 12개월 이내에 조직 구성원 수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N : 1,982 단위 : %)



Key Findings

AI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Job

- AI 및 GenAI가 아직은 기존 사람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 수는 유지되고 있음
- AI 전략가, Prompt Engineer, AI Developer 등 AI 파생 직업 채용 니즈가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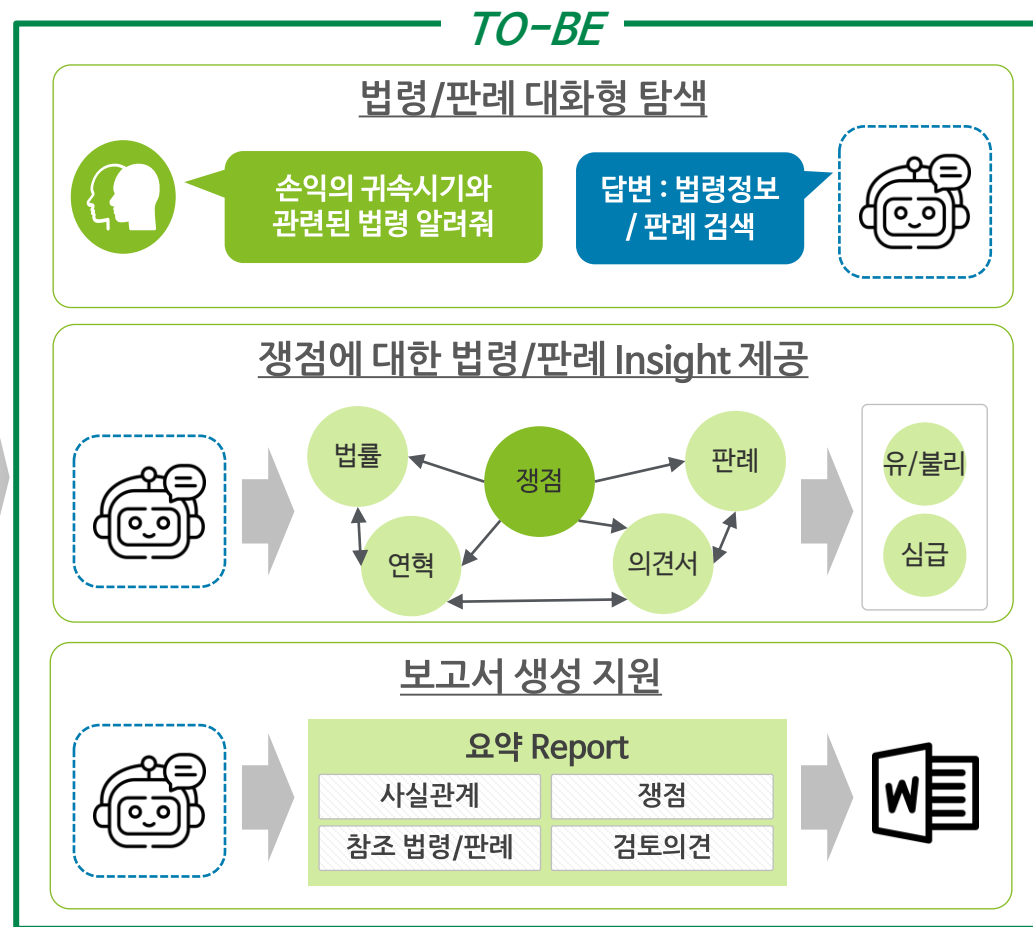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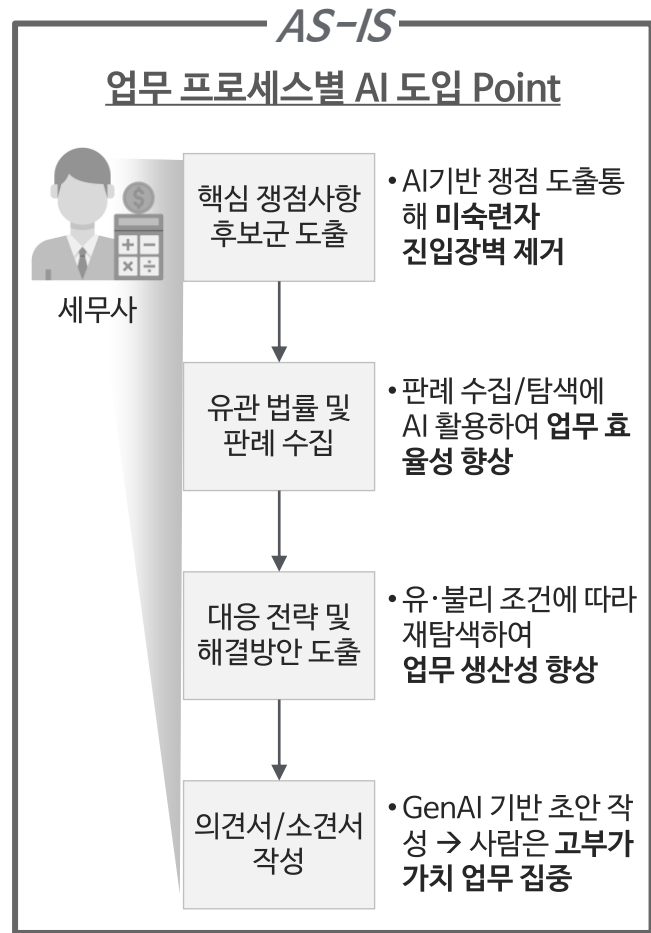
개인: 효율화 ↑
조직: 생산성 ↑

- 개별 임직원은 AI/GenAI를 업무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음
- 조직 레벨에서는 AI/GenAI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조직 Slim화 및 인적 자원 재배치가 가능함

“AI-Fueled Workforce는 보다 효율적으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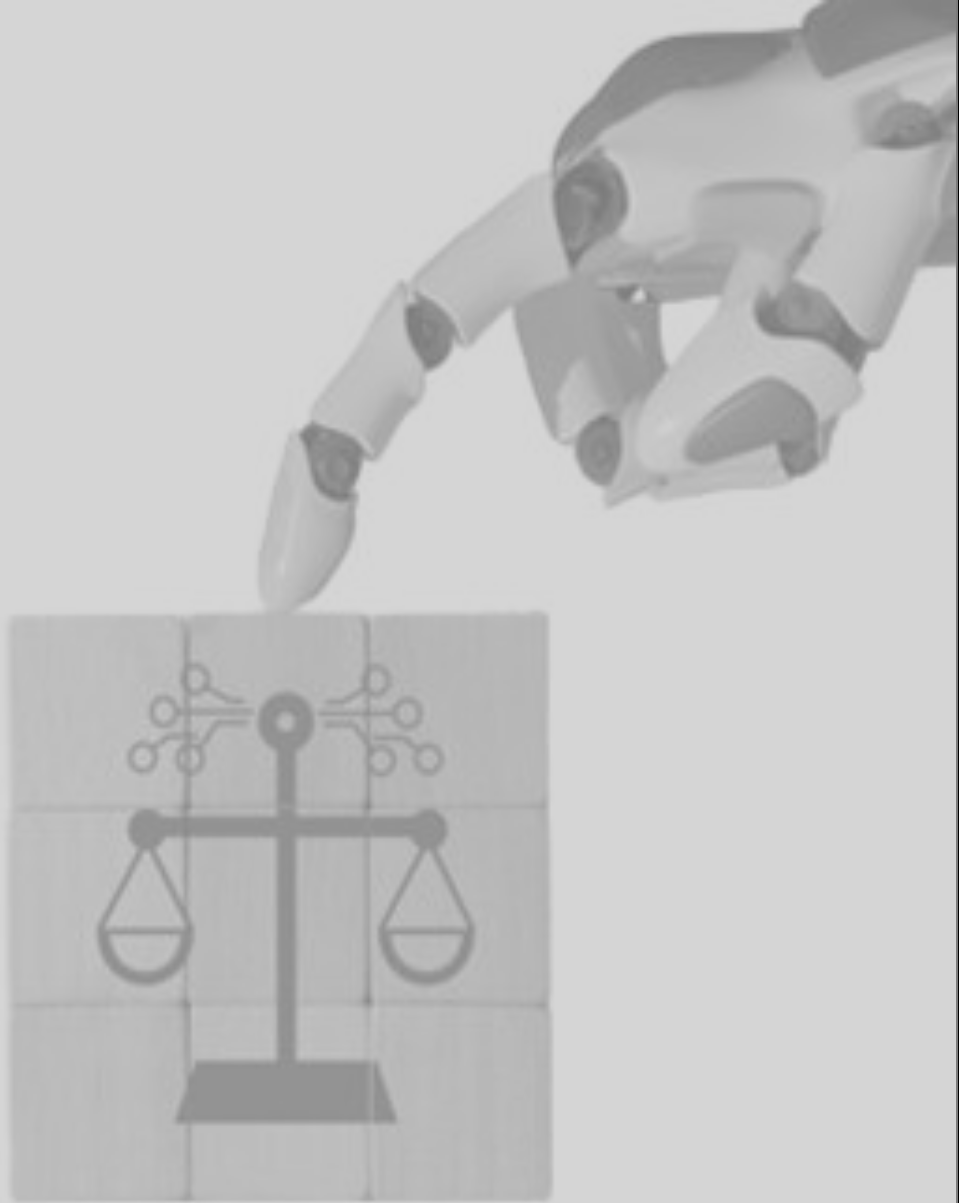
AI 기술 활용 및 AI-Fueled 인력 확보 사례 > 세무 전문 서비스

딜로이트 세무 전문 서비스 부문은 AI 도입 진단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 향상과 표준화된 산출물을 생성하는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AI-Fueled 전문 인력 영입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



Key Takeaway

- 업무 생산성 향상**
 - AI의 활용을 통해 리서치와 자료 작성의 생산성 향상
 - 법령 및 판례 탐색에 필요한 자원을 절감하여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 전문 지식 역량 강화**
 - AI를 통한 전문적인 업무 보조자로서 기능을 수행
 - 수습 및 신입 직원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 일관성 있는 산출물 제공**
 - AI 도구 사용으로 문서의 구조, 논리 전개, 어조를 일관되게 유지
 - 이를 통한 누구나 표준화된 산출물을 제공



사람을 박스로 인식한 로봇...

40대 노동자 깔려 숨졌다

- 산업로봇이 40대 노동자를 박스로 인식하여 압착 사망사고 발생



더 진짜 같은 가짜...

AI에 눈뜨고 당했다

-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 사태 발생



"엄마 큰일 났어" 딸 전화에 은행 갔다가...

부모도 깜빡 속았다

- AI를 활용해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급증...

최소 17명 사망

-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점차 증대

AI 주권의 의미

AI기술은 인간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와 안전 위협 등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AI도입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AI 사용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AI 주권 강화가 필요

AI 주권 : “AI기술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책임 있는 사용과 공정성을 보장하는가?”

Step 1. AI 사전 설계	Step 2. AI 개발/구축	Step 3. AI 서비스 운영
<p>① 데이터 주권 “중요한 의사결정 시, 사용자의 확인 없이 인공지능에게 결정을 맡기진 않는가?”</p> <p>② 데이터 민주주의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 정치 등의 목적으로 권리가 지배되진 않는가?”</p> <p>③ 데이터 정의 (Justice) “개인, 집단, 혹은 계층 간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성에 불평등이 있는가?”</p>	<p>① AI의 편향적 정보 학습 여부 “통계 기반의 AI 학습으로 다수에 의한 차별이나 편향성이 있는가?”</p> <p>②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 차별, 불공정성 “AI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사상, 종교, 성별 등 다양성을 침해 하진 않는가?”</p> <p>③ 치명적인 위험 통제 및 안전 대책 “해킹, 운용자의 실수, 기계학습 특성에 따른 치명적 위험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는가?”</p>	<p>① 사고(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킬러로봇의 오인 발포 등의 책임 여부 판단 기준이 있는가?”</p> <p>② 디지털 감시 “사회 안전과 안보 목적의 공권력에 의한 감시 위험이 있는가?”</p> <p>③ 개인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 특화된 AI서비스가 지속적인 개인 정보 노출이나 인격권 손상 여지가 있는가?”</p>
<p>사례 : 미국 딥페이크 선거운동 -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통화</p>	<p>사례 : 스캐터랩 AI챗봇 ‘이루다’ - 소수자 차별 및 혐오 발언</p>	<p>사례: 바이두 어니봇(Ernie Bot) - 시진핑과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에 답을 회피</p>

AI 운영 정책 및 인프라 관리 체계 준수

국가/산업별 가이드 정책 준수

글로벌 AI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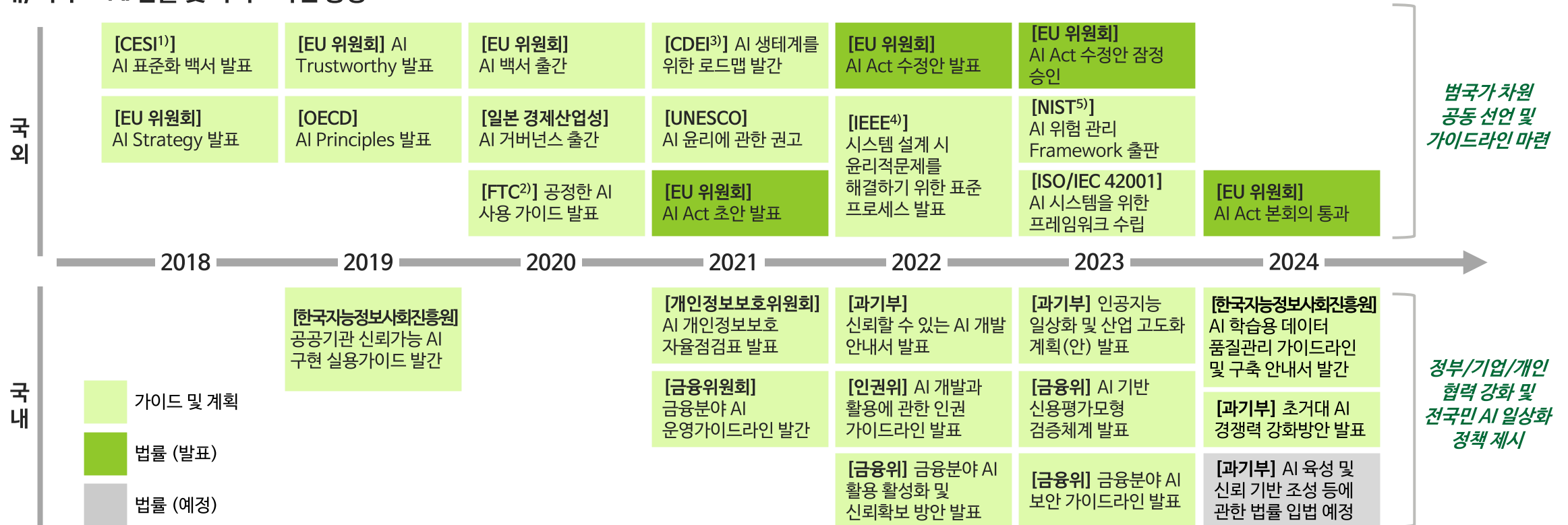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AI 주권 강화

개인/산업 특화 모델 전환

과거 AI 규제는 가이드 라인과 권고 사항에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상세한 법률사항, 국제협력 및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포괄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구체성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를 통해 AI 주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반 마련에 기여

국내/외 주요 AI 법률 및 가이드라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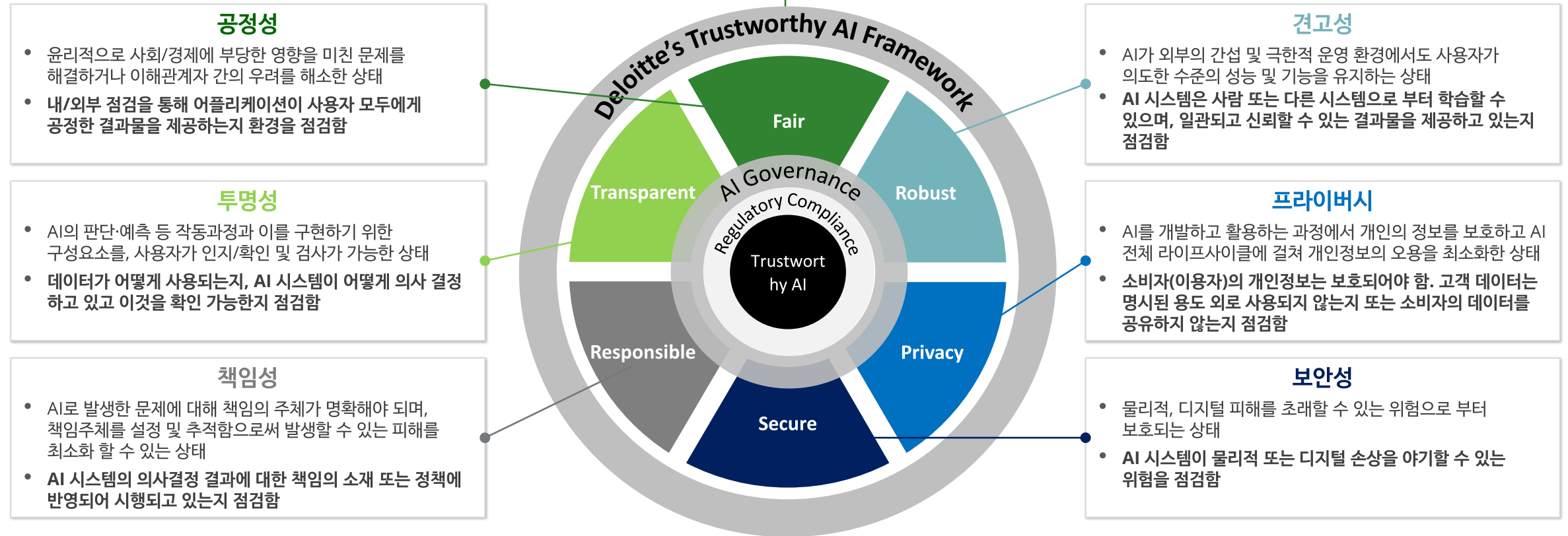
과거 AI 규제 동향은 가이드라인의 탐색적 접근을 취하고, 윤리 지침과 비법적 권고사항을 통한 구성

국제 협력 강화, 산업 특화 법률/규제/활용안, 사회적·윤리적 이슈를 포함한 AI 주권 중심 구성

1) CESI: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 2)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3) CDEI: Centre for Data Ethics & Innovation, 4)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5)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Monitor Deloitte

AI 주권 강화를 위한 Trustworthy AI

AI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 정부의 산업별 정책을 준수하고, AI 설계-개발-배포-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Trustworthy AI Framework(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과 공동 협의체가 필요



국내/외 Key Player의 AI 주권 강화를 위한 발걸음

국내/외 선도 기업은 AI 규제환경에 직면하여, AI 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 중

해외 기업 사례

Google 오픈소스 도구 TensorFlow Model Analysis 4 개발
- AI 시스템의 편향성, 설명 가능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AI 모델의 성능과 편향성을 분석

aws AWS AI 서비스카드 제공
- 공정성, 설명 가능성, 진실성, 견고성, 거버넌스, 투명성,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안정성, 제어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포괄적인 개발 프로세스

Microsoft AI 공정성 진단 시스템인 Fairlearn을 공개
- Fairlearn - AI 시스템의 윤리,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음

OpenAI AI 활용한 거짓정보 및 선거운동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맞춰 선거 관련 ChatGPT 악용 근절 및 신고 기능,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강화, 공식 선거 정보 열람 유도 방침 발표

국내 기업 사례

NAVER 네이버 Future AI 센터를 신설
- AI 안전성 연구를 전담하며, 신뢰 가능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네이버 AI 윤리 정책을 수립

kakao 국내 기업 최초로 전사적 AI윤리 논의 기구인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를 신설
- 기술윤리를 계열사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을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

LG전자 AI 윤리 점검 TF 신설
- LG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AI 윤리 원칙'을 교육해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AI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도 담당

“국내외 AI 선도 기업들은 AI의 공정성 및 안전성을 강조하는 각국 규제에 신규 기술 및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개인/산업 특화 AI 모델로의 전환



취업준비생에 'AI 자소서·면접 진단' 서비스

- AI를 통한 빠르고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진단



위험 사항을 감지한 '취약 계층 안부확인' 서비스

- SKT "AI 안부전화로 위기 취약계층 4000명 도와"



딥마인드, AI로 세상에 없던 물질 38만개 발견

- 수년 걸리던 기존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을 단 며칠로 단축



"로봇이 요리한다"...푸드테크 시대 '활짝'

- 인적자원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균일한 품질의 음식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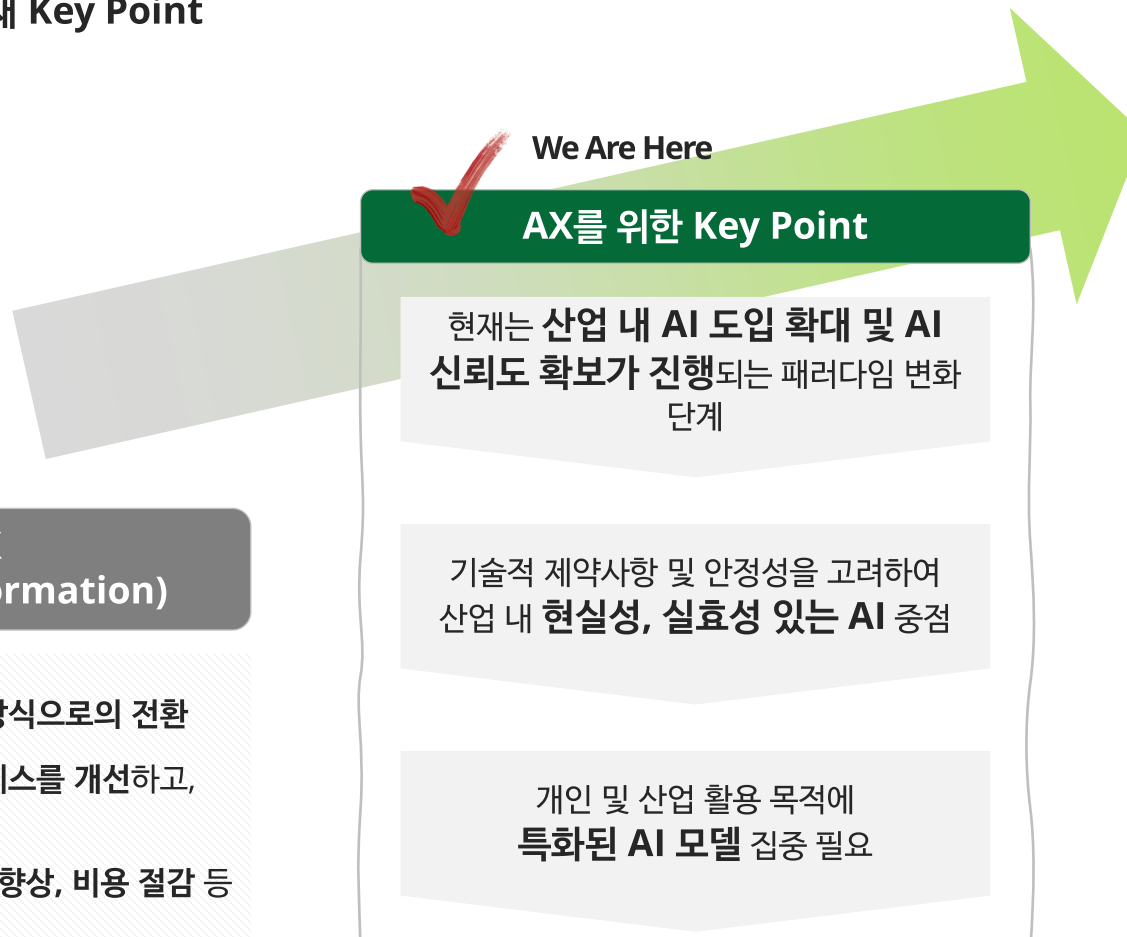
AI 혁신 과도기의 핵심 고려 사항

현재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에서 미래 AI혁신으로 향하는 과도기이며, 성공적인 AI 혁신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과 제약사항이 반영된 AI 도입으로 사용자들의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개인/산업 맞춤형 AI모델 (Tailoring AI)구축이 필요

DX에서 AX로 전환을 위한 현재 Key Point

DT/DX (Digital Transformation)

-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
-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목표
-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객 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등



AX를 위한 Key Point

현재는 산업 내 AI 도입 확대 및 AI 신뢰도 확보가 진행되는 패러다임 변화 단계

기술적 제약사항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산업 내 현실성, 실효성 있는 AI 중점

개인 및 산업 활용 목적에 특화된 AI 모델 집중 필요

AX의 시대 (AI Transformation)

“ AI 기술을 활용해 조직(개인)의 업무와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 ”

- AI 자체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어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활용
- AI 도입이 비즈니스 혁신, 프로세스 개선 등 전사적으로 명확한 목적 하에 진행
- 단발성 도입이 아닌 AI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AI 성숙도 확보

개인/산업 특화 AI 모델로의 전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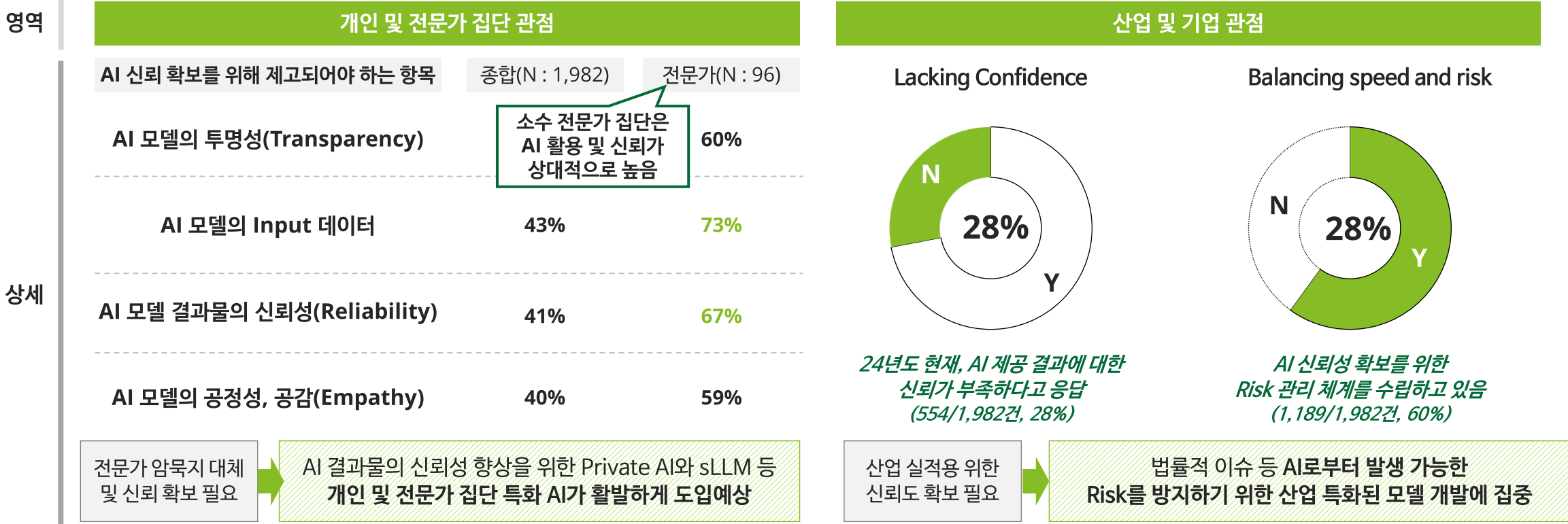
AI 주권 강화

개인/산업 특화 모델 전환

개인의 업무와 기업의 특정 기능을 AI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과 산업에서 AI의 도입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된 모델(Tailoring AI) 구축이 필요

특화 AI 모델의 필요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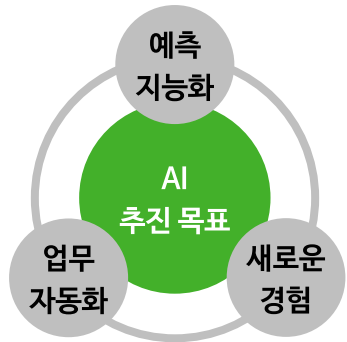
AI에 대한 신뢰를 고양하고, AI 기술 한계 극복 및 AI Risk 관리를 위한 '개인/산업별 특화 모델' 이 확산될 것



Note: 1) AI 신뢰성 및 Risk 관련 설문 (N : 1,982 단위 : %) Source: 1) Deloitte's State of Generative AI in the Enterprise Quarter two report, 2024

산업별 AI 활용 전략과 혁신 잠재력

"Tailoring AI" 비용절감, 지연시간 최소화, 복잡성 완화 등 산업별 우선 가치와 각 산업 맞춤형 혁신을 실현하는 잠재력 보유



6대 산업	실현 가능한 혜택	AI 도입 시 산업별 우선 고려 가치					
		비용 절감	지연시간 최소화	복잡성 완화	인간 기계 상호작용	혁신실현	신뢰강화
1 TMT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장애발견 사전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르고 손쉬운 확장 지원 비즈니스 전략 집중 	✓	✓		✓	
2 Consu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충성도 관리 장애발견 사전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수요 예측 지원 비즈니스 전략 집중 	✓			✓	✓
3 ER&I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및 수요 패턴 예측 자산 네트워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사고 발생 예측 최적화 프로세스 지원 	✓	✓	✓		✓
4 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 시 신용 위험 평가 실시간 사기 거래 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위험 평가 건적 및 보험료 최적화 	✓	✓	✓		✓
5 LSHC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상태 변화 예측 의료 연구 및 조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데이터 흐름 분석 	✓	✓		✓	✓
6 G&PS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혜택 부정 수급 감지 교통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서비스 사용 패턴 공공인프라 모니터링 	✓	✓	✓		

1) Tech, Media, Telecommunications, 2) Energy, Resource & Industrials, 3) Life Sciences & Health Care, 4)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개인 특화 AI 예시 사례

AI는 일정관리 및 어시스턴트 기능과 금융, 쇼핑, 여행 및 건강 관리 등 일상 전반에 걸쳐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구분	상세	설명	사례
일상 관리 도움	일정 관리	개인 일정을 관리하고,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구직 서비스를 통한 자기소개서 첨삭 및 모의 면접 준비 AI 진료안내 서비스를 통한 진료 일정 관리 AI 비서를 통한 개인일정 관리 AI 콜을 통한 어르신 안부확인 및 위험감지 AI 법률 보조 서비스를 통한 법률 서류 작성 및 상담 지원 AI 동물영상진단 보조 서비스를 통한 수의사의 진단 지원
	어시스턴트	일상 업무 처리 지원은 물론, 전문적인 분야까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음	
개인화된 서비스	금융, 쇼핑, 여행	투자자문, 범죄예방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맞춤 상품 추천과 비교를 통한 편리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금융거래탐지 서비스를 통한 카드도용, 부정 거래 등 차단 맞춤형 쇼핑 추천 서비스를 통한 원하는 상품 쉽게 구매 AI 여행 서비스의 항공권, 숙박권 비교 등을 통한 간편한 예약 AI 주치의를 통한 환자 질환 예측 및 가까운 병원 안내 AI 영양제 맞춤 서비스를 통한 개개인에 맞는 영양제 추천
	건강 관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단 및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가 쉬워질 것임	

“개인 누구나 일상에서 계층 소득 구분없이 AI를 손쉽게 접하고 활용하고 있음”

국내 AI 동향

한국 정부는 AI 일상화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 방향성을 주도하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생성형 AI의 잠재적 위험과 대응안 마련을 위한 레드팀 챌린지를 개최하였으며, 민간에서는 고급 AI 인재 확보와 양성에 집중

영역별 국가 AI 일상화 추진 활동

01. 정책/법제

국가 전체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 **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및 AI 일상화 추진

민·관 협의를 위한 공동위원장 체계

과기정통부장관

민간위원장

-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실장급 공무원 7인 구성
- AI반도체, AI윤리 등 민간 전문가 23인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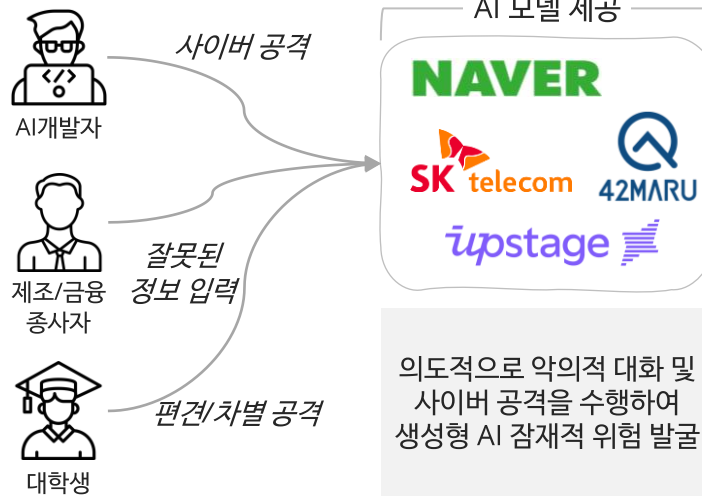
산하 AI 일상화 위한 '초거대AI추진협의회' 구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100개 이상의 기업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 및 소통 예정

02. 기술/연구

생성형 AI Risk 도출 및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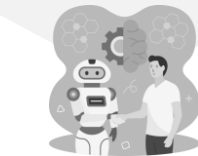
03. 인력/교육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수립 및 예산 확보

생성형 AI 모델 보유 기업 + 대학/연구기관

산학연계 프로젝트

생성AI 선도인재 양성과정(대학원) 신설



고급AI 인재 양성

- 민간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기술 보유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산학연계 프로젝트 확대 및 대학원 과정 신설

AI 시대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 추진 및 AI 일상화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중

결론

딜로이트는 AI 미래 방향성에 부합하는 3가지 전략(AI-Fueled Workforce, Trustworthy AI, Tailoring AI)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 도출 및 발전 방향 모색

1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효율성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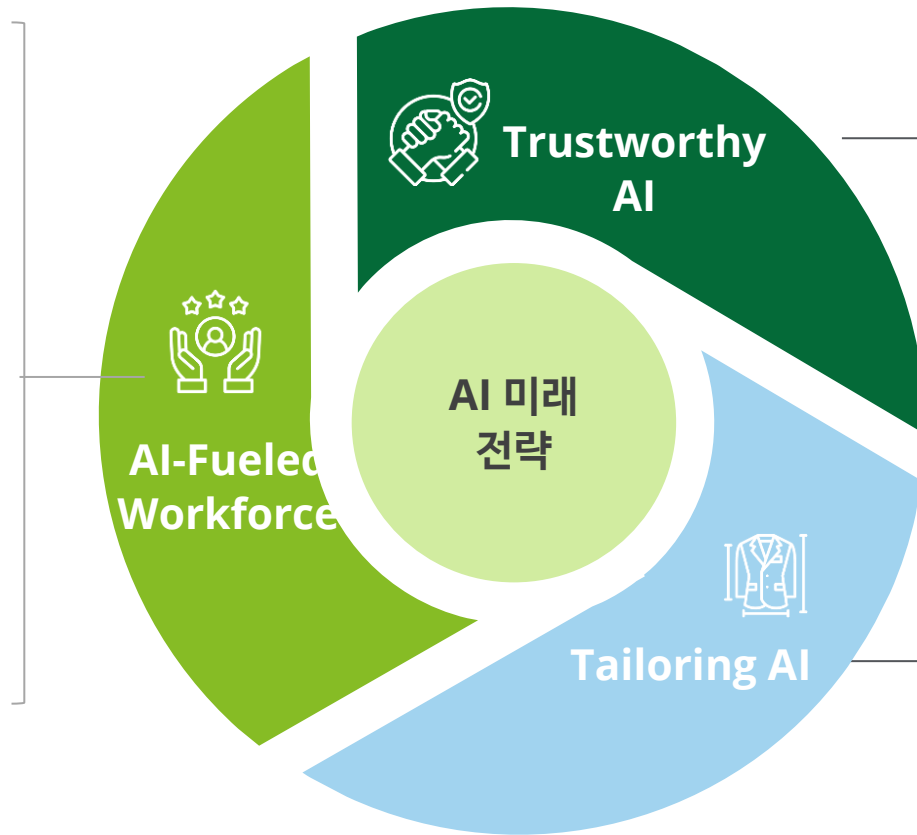
- AI가 단순/반복 작업 처리

업무 만족도 향상

- 창의성/혁신적인 사고 촉진

업무 환경의 혁신

-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2 AI 주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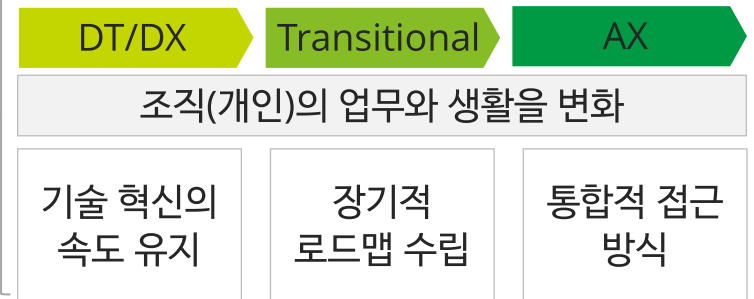
책임소재 명확화

- AI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정의
-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리스크 통제 거버넌스

- AI 시스템의 리스크를 체계적 관리
- 외부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보호

3 개인/산업 특화 AI 모델로의 전환



딜로이트 전략·리스크·거래(SR&T), 기술·혁신(T&T) 부문

딜로이트는 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기업의 가치 창출을 지원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및 해외의 고객 기업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명구 파트너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모니터딜로이트

Tel : 02 6676 3875

E-mail : myungkim@deloitte.com



정현석 파트너

Human Capital Group Leader

Tel : 02 6676 3751

E-mail : hyechung@deloitte.com



이성호 상무

Technology & Transformation |
AI&DATA

Tel : 02 6676 3767

E-mail : sholee@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